

# 『2010년 동계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규탄 성 명 서

지난 11월16일 대한올림픽 위원회(KOC)의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 정치적 압력에 짓눌려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국익을 뒤로 한 "공동개최"라는 최악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평창군의회는 5만 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규탄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는 정치적 이용과 명분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 5만 군민과 300만 강원인 모두는 후보도시 결정에 있어 정치적 열세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적 공동관심사였고 국민체육과 국익이 직결된 국가적 대사마저 정치권이 개입, 국익을 손상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으며, 승리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해하는 수많은 허위공세에도 우리는 참아왔다.

그러나 "공동개최"결정은 결국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은 대외명분만 내세워 빠져나가고 정치적 힘으로 스포츠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과연 누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스포츠 선진국이라 하겠는가.

분명 스포츠는 스포츠정신이 있고 정치는 정치적인 논리가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동은 우리 스포츠 미래를 어두운 동굴로 몰고가는 행위임이 자명할 것이다.

둘째, KOC는 국민으로 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며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KOC는 며칠전 만해도 실사보고서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고 그 무엇보다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전 그 당당했던 모습과 자신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정치적 희생물이라는 국민적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소리친다고 해서 흔들리고" "짓누른다 해 숨을 조리는" KOC에게 누가 국가스포츠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국민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분명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셋째, KOC 공동개최 결정이 고유권한이라면 그 권한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동개최 경우 IOC기준에 위배되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며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결정한 KOC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KOC의 고유권한이라면 사전에 공동개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익을 위하여 입을 모았던 300만 강원인의 외침과 국민의 공감대가 KOC의 잘못된 생각만큼이나 그 가치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순간 오판이 얼마나 많은 국제적 망신과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지는 KOC 자신들 마음결정에 맡기고자 한다.

넷째, 공동개최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IOC의 요구기준까지 위배하고 정치권 개입을 통하여 스포츠 정신

을 왜곡하면서 까지 "공동개최" 결정을 내린 것은 KOC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국가간 경쟁력을 고려했다고 추측하고 싶지않은 추측을 해본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투명성 있게 밝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마저 버리면서 회의장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이 과연 스포츠에서 요구하는 정정당당함이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믿고 따랐던 진정한 스포츠인의 얼굴인지 통탄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 KOC의 작은양심을 되찾기 바라며 IOC 위원장까지 출마한 경험이 있음에도 「정치의 희생 양」 이되고 「소신없는 행동」 과 「무책임한 발언」 을 일삼는 "김윤용"은 사퇴함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일동은 5만 군민과 함께 "공동개최 결정은 정치권이 개입한 명백한 스포츠정신 왜곡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기 전이라도 300만 강원인과 함께 내년과 앞으로 있을 국가적 대사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명백히 밝힐 것을 결의한다.

2001. 11 . 19.

평 창 군 의 회 의 원 일 동